

## 수 많은 도형이 활보하는 공간, 프랙탈 세계 (2014)

글. 문선아 (독립기획)

장철원의 작업의 모체는 자연이다. 그의 작업은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관찰은 이내 '시시각각 변화하는 불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 과연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오렌지에는 핵이 있진 않지만, 잘라보면 단면의 알맹이들은 중심의 어떤 지점을 향해 몰려있는 듯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열매의 모습을 유지하기위해 서로 비슷한 관계나 형상을 취하고 있다. 자연의 패턴이자, 놀라운 원리다. 작가는 이 원리를 구현해내기 위해 도형을 이용한다. 벌집하면 육각형, 해바라기하면 피보나치수열이 연상되듯, 도형이야말로 자연의 형상을 대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작업방식은 이렇다. 주변의 자연이나 사물 등을 관찰하여 그 대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들을 추출하고 디지털 그래픽 툴을 이용해 균형적이고도 단순한 형태로 완성시킨다. 그리고 이 조합을 회전 혹은 중첩시켜 '구성의 균형'을 지닌 특정한 유기적 형상을 만들어낸다.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개체 이미지는 단순함을 기반으로 했으나, 꽤나 복잡한 구조를 띤다. 장철원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제작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칭한다.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중첩시켜 다윗별 모양을 만들어 낸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 형태의 원작자라고 말할 수 없듯, 작가가 일차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역시 자연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하여 작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간다. 자신이 만들어 낸 (그러나 작가의 말에 의하면, 분명 우주의 어딘가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이미지에 수공적 물성을 부여한다. 하나의 의식처럼, 직접 연필을 정성스레 깎아, 머릿속과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던 이미지를 지금, 눈앞의 현상에 있는 캔버스 위에 드로잉 해 낸다. 직선이 여러 개 모여 도형을 형성하고 또 다시 도형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뤄내는 과정을 연상하며 레이어를 쌓아 구조적 이미지를 캔버스에 구축해내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면을 분할해 직선과 직선이 만들어 내는 공간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전반적으로 틀어져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가가 묵묵히 정교한 드로잉을 완성해 가는 것은, 일종의 작가적 수행이다.

작가의 작업은 '기하학에 기반 한 직관'을 전제로 한다. 기하학에 대한 관심은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계기로 증폭됐다. 시차를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니 시계바늘이 이루는 각도가 영국과 한국사이를 잇는 공간적 도형 개념으로 확장됐다. 견고하고 유기적이며,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기하학은 이제 더 이상 수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작가에게 자연과 기하학은 대립되는 이분법적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유하는 것이며, 자연의 질서이자 원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 단순한 하나의 도형에도 무한한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고, 동시에 자연의 숭고함이 서려 있다.

최근 작가는 첫 개인전을 통해 작업들을 정리하고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가졌다. 섬세한 수작업을 통해 그려낸 [Macro and Micro] 시리즈를 통해 작가는 자연의 송고를 관람객들에게 오롯이 전달한다. 작은 도형이미지의 중첩이 거대한 자연의 구조를 건축해내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은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를 동시에 지시한다. 기존 작업의 일부분의 구성을 확대하여 다시 그린 새 작업들은 기하학이 비트맵 이미지(bitmap image)에 기반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벡터(vector)의 방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미지를 확대해도 점선면의 기본적인 요소가 쪼개지지 않는 벡터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성적 사고의, 더 나아가 자연의 무한함을 느끼게 된다.

그의 작업은 자연과학에서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전체 구조를 만드는 '프랙탈(fractal)'이라는 자연과학 개념을 연상시킨다. 미시적으로 축소됐다가 거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는, 잘게 쪼개도 그 안에서 또 다시 같은 구조가 무수히 형성되는 프랙탈은 순환과 영속의 구조를 지닌다. 이 이론의 결론은 '우주의 모든 것이 프랙탈 구조로 되어있다'는 사실인데, 이론을 따른다면 결국 작가는 손으로 우주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평면회화 속 도형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작업 외에도 '인연의 끈'을 모티프로 삼아 사람들의 관계를 유기적 패턴으로 설치해보고 싶다는 작가는, '설계도'가 탄탄하게 준비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동안은 평면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그러나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를 꼼꼼히 기록해 놓은 작가의 다이어리를 보며, 그의 작업이 평면을 벗어나 3차원으로 확장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다.